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인도네시아 박관재,간혜영 선교사 선교기도편지 2020.3



* 기도 제목 *

1. 4월 비자 연장을 위해
2. 빈민촌(kampung Dukuh) 어린이, 청소년의 태권도와 영어 교육 사역이 잘 진행되도록
3. 빈민촌 영혼들에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도록
4.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사역에 집중하게 하시고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도록
5. 가족 모두 영,혼,육이 강건하도록

샬롬! 선교의 동역자님께 감사와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동역자님께 주님이 새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곳 인도네시아도 확진자가 현재 수백명이 넘어서며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3월말까지 사회의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명했습니다. 저도 사역을 잠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저희 자녀들도 학교에 못가고 집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교회도 대부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저의 가족도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 무슬림 빈민촌 사역(캄퐁두꾸)

올해 초부터 캄퐁두꾸라는 무슬림 빈민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 이장에게 허락을 받아 어린이 30명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훈련할 장소가 없어서 마을 운동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이들이 태권도 도복도 입지 않은 채로 맨발로 훈련했습니다. 현재는 태권도 도복을 입고 일주일에 2회 훈련을 합니다. 앞으로는 영어도 가르칠 계획입니다. 이 빈민촌은 무슬림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기 어렵기에 태권도와 영어교육을 통해 다음세대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빈민촌 사람들과 다음세대에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 복음전도 사역

올 초 부터 저는 복음 전도를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이곳에서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때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얼마전 이슬람이 주류인 곳에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명의 무슬림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만난 대부분의 무슬림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선행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길에서 만난 어떤 청년은 제가 전하는 복음을 끝까지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싶다고 해서 같이 영접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저에게 보내 주셨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기에 한계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무슬림을 좀더 이해하고, 복음전도에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현지 교회안에서도 하려고 합니다. 현지 교인들에게 복음 전도를 훈련시키고 또한 관계전도를 하도록 시스템을 세우도록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지 교회가 전도하고 제자 삼는 교회가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나아가 현지교회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앞으로 이곳의 미전도 종족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교의 동역자님!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예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고, 영적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 연락처/파송단체 *

카톡ID: challengerpkj
이메일: challengerpkj@gmail.com
파송단체: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

cintamu, memberkatimu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박관재 & 간혜영 선교사
(요셉,요한,은총)

